연변 여러 민족의 교류와 왕래, 융화 적극 추진

연변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집중조사연구 취재 계렬보도 -2

길림왕청애국주의교양쎈터를 참관중인 취재팀 일행

홍색교양의 진지 길림왕청애국주의교양쎈터

조기 동만특위기관의 소재지이기도 했던 왕청현은 유서깊은 로혁명근거지이다.

10월 30일 아침,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중앙 성 직속 매체 조사연구 취재팀 일행은 왕청현에서의 취재 첫 코스로 현성에서 10여키로메터 떨어진 곳에 자리잡은 길림왕청애국주의교양쎈터에 이르렀다.

2021년에 사용에 교부된 길림왕청애국주의교양쎈터는 왕청의 홍색자원을 충분히 발굴하고 리용하기 위해 소왕청항일유격근거지유적 입구에 '봉화' 주제 전시청을 건설했다.

전시청의 부지면적은 1만 5,000평방메터이고 전시면적은 2,400평방메터로서 서장, '변강위기 분발반항', '기발을 들고 외래침략을 함께 막아내다',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흘리며 분투', '불요불굴의 최후 승리' 및 종장 등 6개 부분으로 나뉘였다. 전시청은 대량의 사료(史料)와 사진으로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 연변의 여러 민족 인민들이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피 흘리며 싸운 항일투쟁의 장려한 서사시를 펼쳐보였다.

이 쎈터는 홍색문화교양 우세에 의거하여 왕청현의 홍색자원을 끊임없이 발굴, 리용하고 보호함으로써 특색이 선명하고 주제가 두드러진 홍색교양의 주요 진지를 구축하였다.

올해 7월에 길림왕청애국주의교양쎈터는 연변에서 첫진으로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4개 교양실천기지의 하나로 선정되여 왕청현이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튼튼한 진지로 되였으며 각 민족의 래왕과 교류, 융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플래트홈으로 되였다.

최근년간 왕청현에서는 홍색자원을 충분히 리용하면서 연구학습에 초점을 맞추어 애국주의, 민족단결 교양을 전개하고 홍색연학, 중화문화연학, 민족단결연학 등 주제를 확정하였으며 길림왕청애국주의교양쎈터체험기지(연학쎈터), 중국조선족농악무연학쎈터, 대흥구진 홍일촌 당성교양연학쎈터를 건설하여 왕청현의 100년 우수한 전통문화가 여러 민족의 교류, 왕래, 융화의 휘황한 경로와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견강한 진지로 되게 하였다.

'중화민족 한가족' 씨앗 심는 왕청현제4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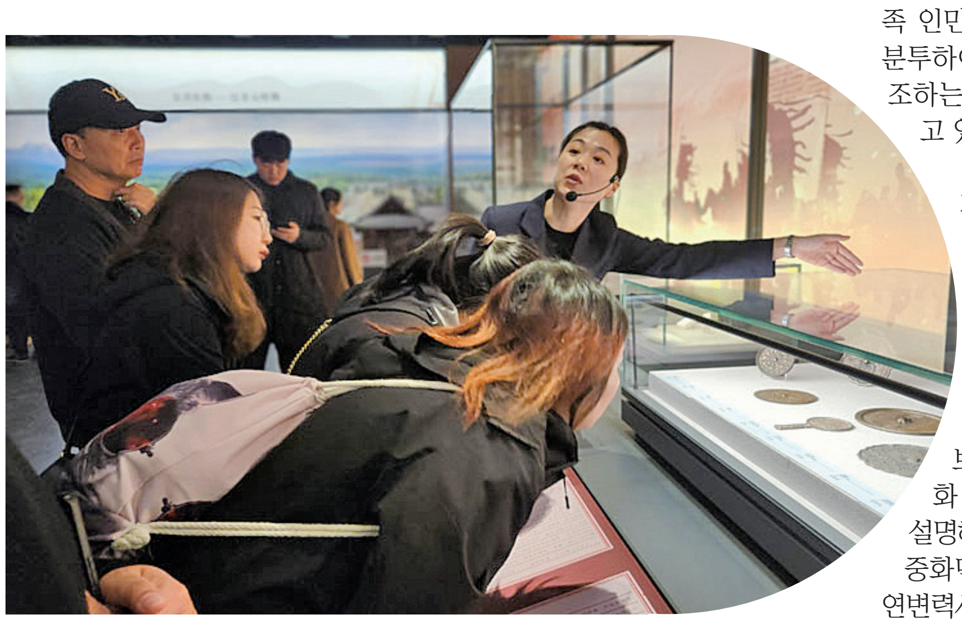
취재팀이 왕청현제4유치원에 들어섰을 때는 한창 오전 수업중이였다.

유치원 2층 중국 미식 체험장에서 어린이들은 교양원의 지도하에 각종 수제 '전통음식'들을 만들고 있었고 3층 체험장에서는 어린이들이 날염작품, 수제자수, 무형문화유산 방직품 등을 만들어보면서 중화 전통문화의 우수함을 익히고 있었다.

왕청현제4유치원 당지부 서기 겸 원장인 리해란은 30년간 유아교육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민족정서를 사업 속에 융합시키고 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교육 리상의 바탕색으로 삼았다.

리해란의 인솔하에 왕청현제4유치원은 민간예술, 민간유희, 명절절기, 동어동음(童语同音) 4대 과정을 구축하고 독특한 사랑의 교육으로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중화민족 한가족'이라는 씨앗을 심어주었다. 최근년간 왕청현제4유치원에서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이라는 이 주선률을 유치원의 일상관리, 과정 건설과 보육교육의 전반 과정에 융합시키고 당건설을 선도로 여러 민족 사생들의 광범한 래왕과 교류, 융화를 촉진하였다.

올해 9월, 왕청현제4유치원 원장 리해란은 '전국민족단결진보모범개인'의 영예를 받아안았다. 영예를 안고 돌아온 그녀는 더욱 확고한 신념으로 민족단결진보사업의 전파자와 실천자로 되여 '중화민족 한가족'의 씨앗이 후대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꽃피우도록 가꾸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연변박물관을 참관하고 있는 취재팀

문화적 자신감 강화하는 농악무 전시관

왕청현은 중국조선족농악무의 발원지이다. 1928년에 왕청현에 처음으로 등장한 중국조선족농악무는 근 100년간의 발전과 변천을 거쳐 문화동질감을 증진하고 민족감정을 유지하며 민족단결을 강화하고 여러 민족의 교류와 융합을 촉진하며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하는 중요한 뉴대로 되였다.

중국조선족농악무전시관은 중국조선족농악무의 발전 력사를 중심으로 사진과 문자, 실물 전시 및 장면 복원, 교육 체험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중국조선족농악무의 발전과 변천을 상세히 소개하고 중국조선족농악무의 문화적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소개에 따르면 왕청현에서는 농악무의 전승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해서 학교, 기업, 사업단위, 향진 농촌과 사회구역들에 32개의 농악무강습기지를 설립하였으며 농악무 복장과 상모, 손북 등을 보내주고 전승기지 보도원이 업무를 도맡는 등 사업 모식을 실행하고 있다.

왕청현에서는 2015년부터 전 현 13개 중소학교와 유치원에 농악무훈련기지를 건립하고 정기적으로 농악무 국가급 대표 전승자 및 왕청현상모춤예술단을 조직하여 중소학교 및 유치원 사생들을 대상으로 농악무 전시공연 활동을 전개하였다.

중국조선족농악무전시관 관장 손지강의 소개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미 각종 훈련, 공연 200여회를 조직, 전개했으며 연인수로 3만 5,000여명의 관광객을 접대했다. 손지강은 향후 중국조선족농악무전시관은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면서 여러 민족 사이 교류와 왕래, 융화를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단영사회구역에서 울려퍼지는 민족단결의 노래

10월 30일 오후, 연변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집중조사연구 취재팀은 연길시 북산가두 단영사회구역에 가 취재했다.

단영사회구역은 단영사회구역 중화민족공동체의식연구쎈터를 건설했는데 연변에서 유일한 사회구역 연학쎈터이다. 연학쎈터에는 홍석류의 집, 축기로(筑基路), 당군중봉사쎈터,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주제벽 등이 포함된다.

단영사회구역 2층에는 '한수의 노래 함께 부르기 주제벽'이 있다. 이것은 단영사회구역에서 자체로 만든 노래 〈중화민족 한가족〉이다. 사회구역당위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왕숙청은 사회구역 사업일군들을 인솔하여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주제를 둘러싸고 〈중화민족 한가족〉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창작하고 적극 보급하였다.

왕숙청의 소개에 따르면 단영사회구역은 사업 과정에 각 민족이 공유하는 중화문화의 부호와 형상을 두드러지게 내세워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했다.

2023년 3월에 단영사회구역에서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축기로를 건설하였는데 이곳 주민들로부터 '민족단결의 길'이라고 불리운다. 단영사회구역에서는 또 3년간 방치해온 청소년활동진지 '민들레의 집'을 '홍석류의 집'으로 개조 승격시켜 여러 민족 대중과 청소년들이 몰입식 체험, 상호작용식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연변박물관에서 민족단결진보의 력사 발자취 탐구

10월 30일 오후, 취재팀은 연변박물관에 가서 연변 민족단결진보사업의 발전 력사와 민족단결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는 력사의 발자취를 찾아보았다.

박물관 전시장은 생산민속, 생활풍습, 인생례의풍속, 시절명절, 민간문예 등 5개 방면으로부터 생활이 서로 융합되고 문화가 서로 통하며 마음이 서로 통하는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의 조화로운 모습과 단결분투하여 아름다운 래일을 함께 창조하는 앙양된 정신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9개월간의 정성스런 준비와 개조를 거쳐 올해 9월 3일, 연변박물관은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과 만났다. 전체 기본 진렬은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하여 연변의 풍부하고 생동한 력사문화를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중화민족 다원일체화 구조의 형성과 발전 력사를 설명해주고 있다.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연변력사문화진렬 제5전시청의 '당을 향한 한마음 휘황을 계속 – 연변 여러 민족 인민 민족단결진보사업의 견실한 발자취'에서는 18차 당대회 이래, 특히 2015년 습근평 총서기가 연변을 시찰한 이래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이 당부를 명기하고 감은 분진하면서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전반 사업, 전략적 임무, 기초적 사업, 생명선 공정으로 삼고 민족단결진보의 업그레이드를 힘써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년간 연변은 '5대 공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10대 행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깊이 추진하고 연변의 민족단결진보사업을 확보하며 시종 실제적으로 일하면서 앞장에 서서 내달리고 있다.

/ 안상근 오건 기자

연길 '매력적인 소리' 관광해설원대회 개최

10월 29일, 연길시 '매력적인 소리' 관광해설원대회 결승전이 연길시문화관에서 열렸다.

연길시는 독특한 민속문화의 매력과 특색 문화관광산업 자원에 힘입어 높은 인기를 누리는 신흥 현역 관광도시로 부상했다. 연길시 관광 브랜드 형상과 시장 경쟁력을 일층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갖추고 자질이 높으며 훌륭한 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관광해설원을 선발, 양성하기 위해 연길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 연길시직속기관당사업위원회, 연길시총공회와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에서는 공동으로 연길시 '매력적인 소리' 관광해설원대회를 개최하여 연길시 광범한 청년들에게 자기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플래트홈을 제공했다.

이번 대회는 예선, 준결승, 결승 3개 단계로 나뉘여 펼쳐졌는데 예선 단계에서 선수들은 연길시의 문화, 무형문화유산, 풍경, 음식, 도시 특색 등을 주제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 주최측에서 심사위원을 조직해 출품된 작품을 동영상의 내용, 선전 시각, 특점, 언어표현 등 면으로부터 평가해 심사 결과에 따라 20위까지 준결승에 올렸다.

준결승 단계에서 선수들은 지정된 관광명소에서 력사문화, 자연풍경, 민속정취 등 내용으로 현장 해설을 진행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선수들의 현장 해설과 소통 표현에 따라 채점하여 10위까지 결승에 진출시켰다.

결승 단계에서 선수들은 주제 해설, 즉흥 해설, 장끼 자랑 등 형식으로 각축전을 펼치면서 업무 능력과 개인적인 매력을 과시하고 심사위원들은 선수들의 표현에 따라 채점했다.

최종 림천욱이 금상을, 사비와 왕예용이 은상을, 왕예동, 단명금연과 엄미하가 동상을 받아안았다.

/ 김영화기자

훈춘시, 전역관광 체계 구축

두만강 중하류에 위치한 훈춘시는 중국, 로씨야, 조선 3국의 접경지대에 위치해있는데 동쪽으로 바다를 끼고 서쪽으로 내지에 잇닿아있으며 바다를 통해 5대주와 통하고 륙지로는 3개 나라를 이으면서 천혜의 지리환경으로 독특한 산수풍경을 조성하고 있다.

최근년간 훈춘시는 이 같은 훌륭한 생태환경, 두터운 문화적 소양과 풍부한 관광자원에 힘입어 '아름다운 훈춘에 취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융합발전, 고품질 발전을 주선으로 하면서 문화관광 대상건설 진척을 다그치고 문화관광 봉사 수준을 향상시키며 특색 문화관광 제품을 개발하여 전 시 문화관광산업이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다.

● 대상 견인으로 융합, 혁신의 특색 부각

지난 10월 1일, 훈춘 실크로드 발해고진이 개업해 손님을 맞기 시작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시민과 관광객들은 공연을 즐기고 미식을 체험하며 중화민족 전통복장을 체험하고 망루에 올라 당조시기 발해고국의 독특한 매력을 만긱했다. 훈춘 실크로드 발해고진에 들어서면 집산중심, 부도통아문, 상업거리, 유람선부두, 관광객봉사중심, 연예광장, 림하생태구역, 경관수로 등 시설이 관객들의 눈길을 끌어당긴다. 당조 가무공연과 고대복장 퍼레이드, 유람선 관광 등 행사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당조시기 태평성세의 정경 속으로 들어간 듯한 착각을 가지게 한다.

훈춘 실크로드 발해고진 관광봉사부 책임자 윤용은 총 투자가 4억 8,000만원인 실크로드 발해고진 대상은 당조시기 발해국의 력사를 배경으로 하면서 그 시기 건축 풍격과 결부해 발해국의 력사, 문화 풍모를 참관 체험, 음식 및 숙박, 쇼핑 및 오락에 여러 차원으로 녹여냄으로써 많은 시민, 관광객들이 발해 정취를 느끼도록 하고 이들에게 력사, 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몰입식 관광 코스를 가져다주면서 훈춘 문화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훈춘 실크로드 발해고진은 훈춘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동한 문화관광대상 가운데의 하나의 축소판에 불과하다. 최근년간 훈춘시는 대상건설을 착력점으로 변경, 생태, 민속, 력사, 홍색 등 5대 관광자원을 깊이 발굴, 리용하여 꾸준히 문화관광산업의 발전 토대를 다지고 '량극, 3대, 6구' 전역관광의 새 구도를 다그쳐 구축했다. 현재 투자가 4억 8,000만원인 민족국제화원호텔, 투자가 6억원인 와스토크환락섬, 투자가 6억 5,000만원인 동북아국제상품성, 총 투자가 3억 1,300만원인 동북범표범 과학보급교육 및 자원전시 대상 등 일련의 문화관광 대상이 건설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다. 또한 총 투자가 3억원인 랭수어산업단지 등 대상건설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온특혁부성 고대 사찰터 보호 전시 리용 프로젝트, 권하관광레저휴양지, 민속문화원 등 대상도 적극 계획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다원화된 수요를 충족시키고 문화관광산업의 돌파를 이룩하도록 했다.

● 특색거리로 소비 '엔진' 가동

새로운 업종을 인입하고 새로운 체험식 소비 정경을 마련했으며 더 많은 문화적 요소를 주입했다. 훈춘에서는 특색 상업구역이 빠르게 '궐기'해 인기와 상업 발전 기세를 집중시키면서 훈춘의 소비를 견인하고 도시 형상을 승격시키는 중요한 담체로 떠올랐다. 특히 훈춘 유럽거리는 특색이 뚜렷한 유럽식 경관과 농후한 문화 분위기로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훈춘에 오면 반드시 찾는 '필수 방문지'로 되였다. 유럽거리는 전에 바닥이 오래되고 경관시설이 낡고 파손된 등 원인으로 불황을 겪었다. 특색거리를 건설하기 위해 훈춘시는 유럽거리 경관 승격, 개조 대상을 가동하고 건물을 복구하거나 부분적으로 개조한 한편 조명시설을 증가하고 왕훙 요소를 도입해 거리 중앙에 20대의 왕훙 기차를 설치하고 림시 공연무대 등 시설을 설치하여 유럽식 거리의 관광, 구경 효과를 향상시켰다.

최근년간 훈춘시는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대책을 세우고 문화관광의 새로운 특점과 대중 관광의 새로운 특징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문화관광 소비 정경을 꾸준히 갱신하고 유럽식거리, 훈춘해산물거리, 한당문화거리 등 특색거리를 건설했으며 '야간 관광, 쇼핑, 식사, 오락, 견학, 운동' 등 특색활동 개최를 통해 야간경제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써 훈춘의 야간 소비를 진작시키고 대중들의 생활에 즐거움을 더해주었다.

● 브랜드 효과로 문화관광 인기 한층 끌어올려

최근년간 훈춘시는 전역관광을 고품질로 발전시키는 목표와 결부해 핵심 브랜드 건설을 부각시키고 전역관광 체계를 구축했으며 전 성 나아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 경기, 문화활동을 개최하고 산업 브랜드를 구축했다.

올 들어 선후하여 2024년 '중화민족 한가족, 한마음으로 중국꿈 구축' 보름 대중문화활동, '다채로운 오락·훈춘 야간관광' 문화관광 주제 활동, 2024 새해맞이 행복 기원 활동, 2024 중로 새해맞이 야회, 2024 훈춘킹크랩미식축제 등 문화축제활동들을 펼쳤다. 또한 '빙설에서 꿈을 쫓고 미래를 지향' 2024년 훈춘시 제1회 중소학생 겨울철 빙설운동회, 제8회 중한로 태권도문화및기술교류회, 2024년 훈춘시청소년테니스선수권대회, 변경 '트인 마음으로 변경에서 달리기' 성장컵 중국·길림 변경삼림마라톤시리즈경기 등 체육활동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 두만강뉴스